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입니다.

Annual Report 2016

2016 사업보고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입니다.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Tel 02-734-7070 | Fax 02-734-8770 | ksmseoul@ksm.or.kr
www.ksm.or.kr

www.ksm.or.kr



세계는 하나! 그럼 북한은요?

유치원 다니는 딸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북한이 어디야? 아프리카보다 멀어?”

달나라도 갈 수 있는 시대에
딸 아이에게 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는 하나라고 가르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보면
딸 아이의 머릿속에 북한은
유독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목 차

발간사	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소개	6
인도지원과 평화의 발자취	8
연도별 방북자 및 물자지원 현황	10
2016년 활동일지	12
2016년 한눈에 보는 사업 성과	14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16
사업별 성과 보고	
1. 대북지원사업	18
2.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20
3.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지원사업	21
4.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22
5. 한민족어린이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수거	24
6. 평화교육사업	26
7. 국제협력사업	28
8. 정책연구사업	30
9. 경기지역 중고등학교 동아리 봉사활동	31
10. 대외협력사업	32
본부별 성과 보고	
1.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우리민족)	33
2. 부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34
3.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35
2016년 사업결산	36
함께하는 사람들	37
후원자 응원 메시지	38
후원자 명단	40
후원 안내	43

2016년 사업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앞날을 준비한 시간

2016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에도 평화와 나눔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에 변함없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6년 한 해는 우리 한반도가 분단된 지 71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한 지 2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분단 70년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열망으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열심히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팍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초부터 창립 이후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백서를 준비했습니다. 96년 창립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표면적인 현상은 어쩌면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을까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분단 70년의 명예를 극복하는 데 20년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걸어온 길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행해온 일들이 무척이나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점을 또다른 측면에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백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 나눔과 평화의 길, 그 20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백서에 담긴 남북화해의 여정을 밑바탕 삼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년 전 창립식이 열렸던 바로 그 날인 6월21일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일을 전망하고 계획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의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보고서 본문에 정리된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상반기 중에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0주년을 맞은 지난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년 전의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 대규모의 대북지원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말~9월 초 북쪽 함경북도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9월 중순부터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 2017년 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약 6억원 상당의 긴급 지원물자를 현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지원을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주의 원칙과 동포애의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20년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했던 당시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20주년을 맞아 백서를 제작하고 비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긴급 수재지원을 전개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최근 몇 년간 진행해 오던 여러 사업들도 충실히 전개했습니다. 한민족 어린이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현 교과서 수거활동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 2016년 한 해에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2,000여개 학교가 동참하는 몸집을 갖추었습니다. 현 교과서 수거로 마련된 기금은 2016년 12월 열 다섯 번째 중국 조선족학교 네모상자 도서관이 되었고, 볼고그라드 고려인 문화학교의 소중한 운영자금이 되었습니다. 대북지원 국제회의, 축구와 평화를 접목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도 해를 거듭하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6년도 사업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하면서 지난 한 해 팍 막힌 남북관계를 핑계로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보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더 노력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보고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난 한 해의 솔직한 기록이자 애정 어린 비판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과 북의 상호협력과 평화공존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녘과 해외의 동포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들을 쉬없이 전개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경사되지 않고 그저 평화와 나눔 정신에 공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정성과 창립정신만을 활동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그 바탕에는 물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아껴주시는 여러 후원자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올해에는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그 일익이 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후원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비전 2030

1996년 설립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6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을 분석·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목표 설정을 위한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목표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비전2030 수립을 위한 단체 내외부 인사 15명을 위촉하여 '비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에 이일영 상임공동대표를 선임했습니다. 효과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NPO스쿨의 자문을 받아 약 6개월간의 사무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워크숍을 10회 가량 진행했습니다. 사무처에서 수립된 안을 바탕으로 2차례의 비전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전2030(안)이 마련됐습니다. 2017년 2월 공동대표회의에서 승인을 거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비전 2030>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 핵심목표와 10대 실천과제를 소개합니다.

비전 VISION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평화공동체

미션 MISSION

우리는 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위해 일한다.

핵심목표와 10대 실천과제

1. 민족 공동 발전과 남북 간 격차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의 확대

- ① 농축산, 보건의료, 생태환경, 지식공유 분야 등에서 지속가능하며 상호이익이 되는 방식의 남북협력사업 선도
- ② 인도적 필요가 있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서로돕기운동의 확대
- ③ 남북 교류 협력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평양사무소 설치와 관계망 구축
- ④ 비전의 공유와 평화협력을 위한 재외동포 사회와의 관계 증진

2. 한반도 갈등해결과 우리사회 평화문화 확산

- ⑤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
- ⑥ 스포츠와 문화를 매개로 하는 참여적 방식의 평화교육 실행
- ⑦ 평화로운 남북통합의 길을 열어가는 사회문화교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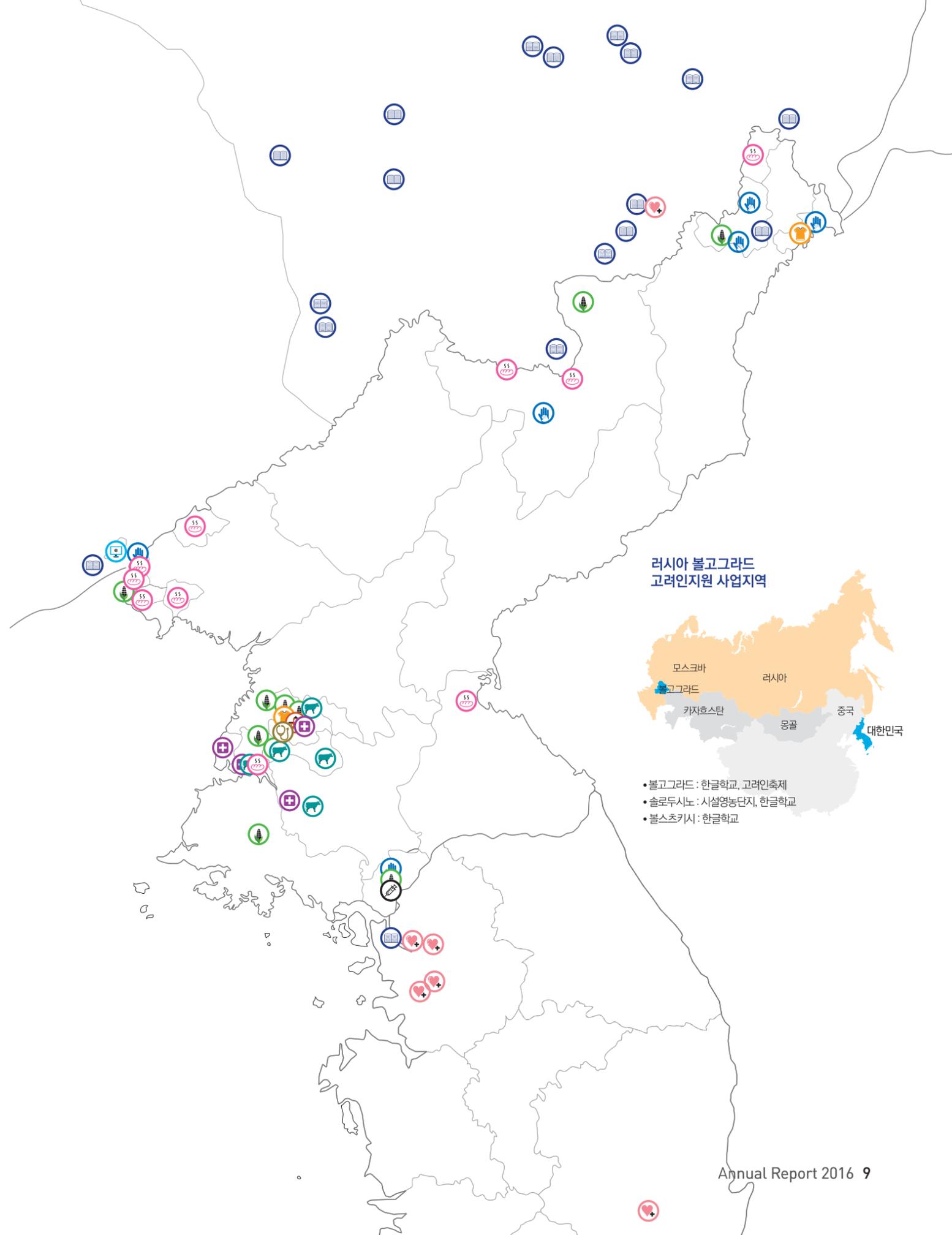
3. 국내외 연대강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조성

- ⑧ 시민참여와 소통의 확장을 통한 개방적인 조직 운영
- ⑨ 안정적인 모금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한 재정구조 실현
- ⑩ 평화와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남과 북, 해외까지 닿았습니다

201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평화, 남북통합 NGO로서 남과 북,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향한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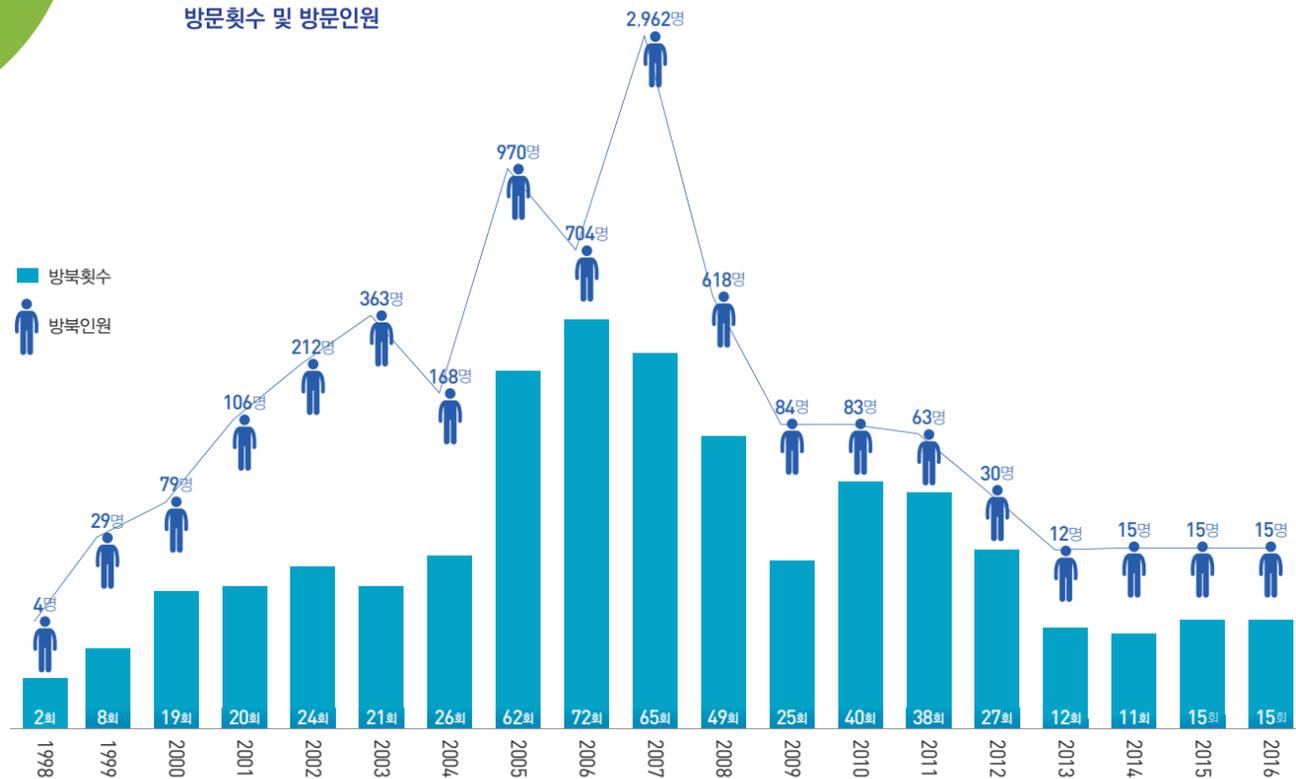
 <p>농촌현대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북도 씨감자 지원 • 평안남도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 평안남도 강서군: 농기계공장 • 화령 씨감자 지원 • 양강도 농기계 지원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 평양시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재배농장 • 평양시 시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 • 평양시 강안군 장교리: 협동농장 벼농사공동재배, 농촌현대화사업 • 황해남도 신천군: 농기계수리공장 • 개성시: 개성시 전역 • 개성시 개풍군: 개풍양묘장 	 <p>축산협력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일용종계장 • 평양시 상원군: 축산시범농장 • 평양시 강안군 장교리: 양돈장, 육묘온실 • 평안남도 남포시: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 황해북도 봉산군: C.C.C 젖염소종축장 	 <p>어린이급식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북도 온성군: 45개 유치원, 1개 고아원 3,245명 • 양강도 해산: 유치원, 탁아소 • 평안북도 염주군: 염주군양생원 • 평안북도 동림군: 동림중등학교원 • 평안북도 룡천군: 룡천군육아원 • 평안북도 신의주: 신의주 육아원-애육원 • 평안북도 식주군: 식주군이부모학원 • 평안남도 남포시: 유치원, 탁아소 • 강원도 원산시, 문천시: 육아원-애육원 	 <p>중국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림성: 매하구소학교, 장백현소학교, 서린시소학교, 장춘록원구소학교, 화룡신동소학교, 룡정북안소학교, 훈춘제1실협소학교, 영길현실협소학교, 류하현학교 • 흑룡강성: 오상시소·중학교, 냉양시중학교, 삼지시소·중학교 • 룡녕성: 단동시학교 • 동북3성 조선족학교: 한글도서 지원,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p>긴급구호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북도 회령: 3개 유치원 889명 • 양강도: 유치원 탁아소 5,800명 • 평안북도 신의주: 전역 • 개성시 및 황해도 6개군: 전역 • 나진선봉: 유치원, 탁아소 • 함경북도 무산, 회령, 온성 수해지원 	 <p>병원현대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동대원구역: 조선적십자종합병원 • 평안남도 남포시: 남포산원 • 황해북도 사리원: 인민병원 • 평안남도 온천군: 온천군병원 	 <p>제약공장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낙랑구역: 정 성의학종합센터 (정성수액약품-일약품공장) 	 <p>IT교육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단둥: 허나소프트 교육원
 <p>생활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선봉: 의류지원 • 평양시 만경대구역: 식품가공공장 	 <p>말라리아 방역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남북도: 말라리아 방역 	 <p>교육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중구역: 금성 제1중학교 	 <p>평화교육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 경기 수원: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 경기 동탄: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 서울: 평화축구 코치트레이닝 • 중국연길: 한국청소년평화이니셔티브 • 대구: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수많은 남과 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남과 북을 잇는 마중물 역할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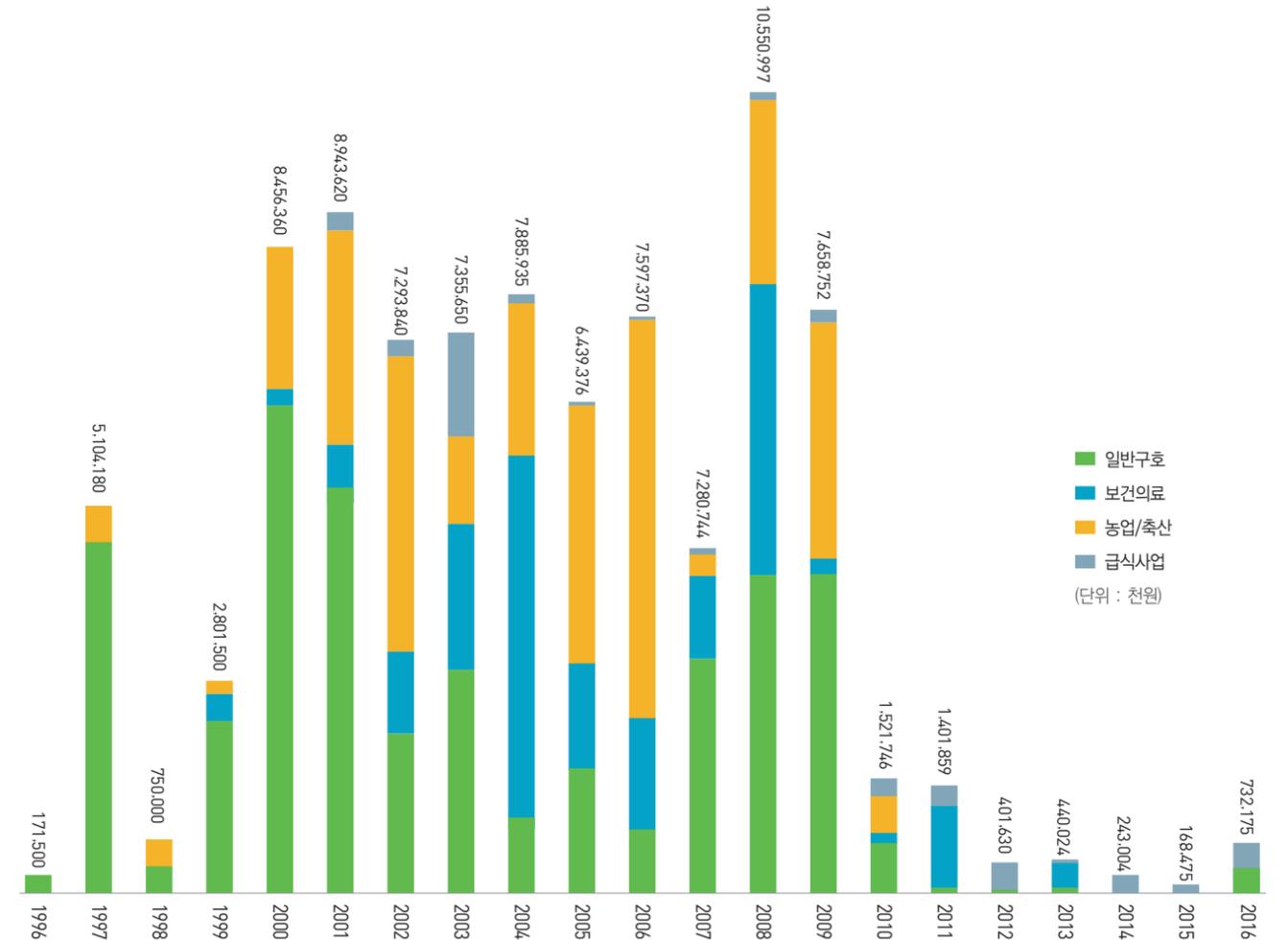
방문횟수 및 방문인원



방북자 현황

연도	방문횟수(회)	연인원(명)	방문지역별(횟수/연인원)							
			평양	남포	신의주(통천)	개성	금강산	기타		
1998	2	4	1회 2명		1회 2명					
1999	8	29	2회 13명	4회 10명	2회 6명					
2000	19	79	8회 48명	8회 20명	3회 11명					
2001	20	106	14회 85명	5회 17명	1회 4명					
2002	24	212	20회 203명	3회 7명					1회 2명(자강도만포)	
2003	21	363	19회 356명	2회 7명						
2004	26	168	18회 136명	4회 15명	1회 7명	1회 3명	2회 7명			
2005	62	970	37회 811명	6회 13명	2회 18명	17회 130명				
2006	72	704	60회 647명		2회 2명	8회 48명	2회 7명			
2007	65	2,962	38회 471명		3회 3명	24회 2,488명				
2008	49	618	13회 271명	2회 12명	4회 4명	22회 377명	1회 1명	7회 7명(함북은성)		
2009	25	84	9회 59명		4회 4명	2회 11명		10회 10명(함북은성)		
2010	40	83	2회 21명		1회 4명	5회 26명		32회 32명(함북 은성/회령)		
2011	38	63	2회 6명			8회 31명		28회 28명(함북은성)		
2012	27	30				3회 6명		24회 24명(량강도 해산, 함북 은성)		
2013	12	12						12회 12명(량강도 해산, 함북 은성)		
2014	11	15				1회 5명		10회 10명(명남 안주, 강원 원산, 량강도 해산)		
2015	15	15						15회 15명(함북은성, 강원원산, 량강도 해산, 라진선봉)		
2016	15	15						15회 15명(함북은성, 함북무산, 강원원산)		
합계	551	6,532	243회 3,075명	34회 101명	24회 65명	90회 3,124명	5회 15명	154회 155명		

* 2007년까지는 한국국적 방문자만 집계.
 * 2008년부터는 북한 어린이 지원 해외동포들의 신의주, 룡천, 함북 은성 지역 등에 방문한 횟수를 포함.
 * 해외동포의 평안남도 안주, 강원도 원산, 량강도 해산과 함북 은성 방문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한국 국적자의 개성이외 지역에 대한 방북은 전무함.



물자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금식사업(취약계층)	계
1996	171,500				171,500
1997	4,612,180		492,000		5,104,180
1998	330,000		420,000		750,000
1999	2,290,000	376,500	135,000		2,801,500
2000	6,382,900	202,190	1,871,270		8,456,360
2001	5,344,390	556,000	2,823,230	220,000	8,943,620
2002	2,108,750	1,090,530	3,928,850	165,710	7,293,840
2003	2,891,390	1,952,370	1,209,710	1,302,180	7,355,650
2004	1,007,250	4,726,480	2,074,080	78,125	7,885,935
2005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6,439,376
2006	828,920	1,499,140	5,264,130	5,180	7,597,370
2007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7,280,744
2008	4,181,110	3,875,382	2,427,461	67,044	10,550,997
2009	4,163,576	229,980	3,150,606	114,590	7,658,752
2010	666,312	114,917	528,114	212,403	1,521,746
2011	47,000	1,120,368		234,491	1,401,859
2012	30,453			371,177	401,630
2013	11,236	36,872		391,916	440,024
2014				243,004	243,004
2015				168,475	168,475
2016	399,458			332,717	732,175
합계	40,183,753	18,269,381	30,784,019	3,961,584	93,198,737

2016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p>1월 정세 전망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p> 	<p>2월</p> 	<p>3월</p> 	<p>4월</p> 	<p>5월</p> 	<p>6월</p> 
<p>4일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5~7일 한민족 어린이 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수거 6일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 도서 기증 7일 20년 백서 3차 집필진 회의 8일 긴급 비공개 라운드테이블</p>	<p>1일 <북민협> 2016년 정기총회 2일 2월 상임위원회 2~19일 한민족 어린이 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수거 12일 UN인구기금 간담회 16일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을 위한 국회전시회 개막식 26일 제78차 공동대표회의</p>	<p>21일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3월 상임위원회 29일 2015년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31일 제2차 백서발간위원회 전체회의 및 간담회 북한 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p>	<p>9~30일 제6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서울) 12일 북한 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27일 북한 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p>	<p>5일 중국 길림성 영길현 조선족실험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18일 5월 상임위원회 25일 길음중학교 NGO 단체 탐방 28일 여성평화걷기대회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공동주최 28일~6월 8일 미국 달라스본부 대표단 방북</p>	<p>14일 제78차 공동대표회의 17일 20년 백서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 발간 21일 창립 20주년 기념식 (세종문화회관) 28일 중국 대북지원 NGO회의</p>
<p>7월</p> 	<p>8월</p> 	<p>9월</p> 	<p>10월</p> 	<p>11월</p> 	<p>12월</p> 
<p>8일 중국 단둥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8~12일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국내 초청연수 18~29일 한민족 어린이 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수거 22~25일 스포츠를 통한 평화축구 코치트레이닝 27일 새길교회 북한 어린이 지원 성금 전달</p>	<p>9~14일 경기도교육청-네모상자 동아리 중국 봉사활동 17일 체육시민연대 '평화 마라톤대회' 참가 20일 네모상자 동아리 축제 '네모상자를 품다' 개최 22일 북한 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제63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2016년 8월, 한반도와 주변 정세, 어떻게 읽어 내고 대응해야 하나 30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p>	<p>3~14일 미국 달라스본부 대표단 방북 17~21일 영국 F4P 코치트레이닝 참가 19일 북한 함경북도 홍수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 캠페인 시작 20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1차) 24~28일 BaB 캠페인 후원자 지원현장 방문 26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2차) 26일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조선족중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26일 제64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상: 장마당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27일 중국 길림성 류하현조선족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29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3차)</p>	<p>7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4차) 7일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에 한글도서 9천여권 전달 7일 맑은샘학교 수해지원 성금 전달 10일~13일 중국 조선족학교 자매결연과 2017년 사업협의를 위한 경기도 중국 방문 11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5차) 13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6차) 17~18일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 21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7차) 21일~28일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대표단 방문 26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8차) 31일 보리출판사,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 8천권 기증</p>	<p>8일 제80차 공동대표회의 9~13일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현지 연수(중국 심양) 14일~30일 한민족 어린이 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수거 15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9차) 19일~20일 제7기 어린이평화축구교실(동탄) 21일 제65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평양의 시장경제 실태와 평가 22일~23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10차) 25일 <북민협> 대북지원 관련 법률안 입법 공청회 평화·통일활동가 워크숍 28일 사무처 내부 정책간담회 -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사례와 남겨진 과제들</p>	<p>2일 중국 룽녕성 단둥조선족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3~4일 어린이 평화축구교실(대구) 13일 비전위원회 전체회의(1차) 19일 평화나눔센터 특별간담회 - 북한 2016 신년사 리뷰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 20일 민족화해상 시상식 26~30일 한민족 어린이 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수거 28일 상임위원회 29일 웨스턴테크닉 성금전달식 29일 대북 수해 긴급지원(11차)</p>

대북지원사업

북한 함경북도 지역 수재민에
 대국민모금을 통해 총 14회에 걸쳐
615,921,523 원을 모금
 총 **615,921,523** 원에 달하는 물자 지원




러시아 블고그라드 고려인 지원사업

제13회 고려인문화축제 개최
 제1회 고려인청년포럼 개최



한민족어린이지원을 위한 헌교과서 수거

총 1,753개 서울,경기지역 초,중,고교 참여
 약 2.5억원의 기금 마련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총 4개 <네모상자 도서관> 설치
 총 69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진행
 총 25,717권의 한글도서를 지원




평화교육사업

총 3회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에 어린이 70여명 참여
93% 매우 만족

총 1회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에 130여명 참여
90% 매우 만족

총 3회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에 중,고등학생 200여명 참여



국제협력사업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국내외 NGO, UN, 전문가 등 총 80여명 참여



정책연구사업

총 3회 정책 포럼에 100여명 참석
 총 3회 토론회에 200여명 참석



경기지역 중고등학교 동아리 봉사활동

총 7개 중고등학교 '네모상자 동아리' 한글도서 수집과 분류에 참여



대외협력사업

북민협, 대북지원 법률제정 입법활동
 '여성평화걷기대회' 공동주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마라톤' 참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20년 백서 발간 및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수립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6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20주년 기념사업>으로 20년 백서를 발간하는 한편 20년 전 창립한 바로 그 날인 6월 21일에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전과 미션 수립을 위한 비전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선 20년 백서 발간을 위해 최완규 상임공동대표를 발간위원장으로 하는 <백서 발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발간위원으로는 20년 전 창립 당시 정책위원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인연을 맺은 최대석 공동대표(이화여대 교수)와 전임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이용선 공동대표가 위촉됐습니다. 이에 더해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김동진 아일랜드 트리니티컬리지 더블린 겸임교수, 문경연 전북대 교수 등 세 분이 외부 집필진으로 백서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 말 몇 차례의 사전 회의를 거친 백서 제작 작업은 2016년 6월까지 진행됐습니다. 백서 제작을 위해 집필진 회의와 발간위원회 회의를 지속하는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해 그 내용을 백서에 싣기도 했습니다.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이라는 백서 제목도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백서에는 또 지난 20년간 우리와 함께 했거나 지켜봐 주신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는데, 특히 지난 97년 평양에 상주하면서 유엔 기구들의 식량원조 연락사무소장을 역임했던 에리히 와인가트너(Erich Weingartner) 캔코(CanKor) 편집장의 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The Challenge of Sharing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제목의 이 글은 “한반도에서 ‘나눔’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백서에 실렸습니다.

와인가트너는 이 글에서 “나눔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이와 무언가를 나눌 때, 그 나눔은 주는 이와 받는 이 양쪽 모두의 것이며, 자원을 나눈다는 것은 그러한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나눔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정의하는 특징이다. 나누지 않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적 속성을 포기한 것이며, 나눔에 대한 거부는 공동체가 분열되었다는 증거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는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북간의 나눔과 ‘서로돕기’도 막아왔다. 그런 점에서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공동체가 분열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이다”라고 우리의 현 상황을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한반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화해”라고 지적한 그는 “자원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 갈망과 희망을 터놓고 나누는 것, 이것이 화해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서의 2부를 구성하는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처의 구성원들이 나누어 집필했습니다. 사무처 성원들은 각 부문별 사업 내용을 집필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0년간 진행해 왔던 개개의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서는 부록까지 합쳐 총 580쪽에 이릅니다.

한편 20년 백서의 격려사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보내주셨고, 축하에는 정의화 제19대 국회 국회의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

백서 발간을 마무리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백서 발간식을 겸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20년 전 창립한 바로 그 날인 6월 21일에 거행했습니다. 20년 전 창립식이 거행됐던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려고도 했지만, 장소의 협소함 등을 이유로 기념식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故 강원룡 목사의 생전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최완규 상임공동대표의 기념사와 안철수 국민당 상임공동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년이 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제 일반명사가 아니라고 유명사가 됐다”고 강조하고 “대북지원사업이 정치적

으로 자유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지킨 것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는 20년 백서와 더불어 북한의 묘향산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주걱을 선물했습니다. 이 주걱에는 “밥은 같이 먹어야 밥이다”라고 노래한 어느 시인의 말씀대로 남과 북이 둘러앉아 이 주걱으로 같이 밥을 떠 먹는 날을 꿈꾸는 우리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비전위원회 구성, 새로운 비전과 미션 수립

2016년 상반기 백서 발간과 기념식 거행에 전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비전과 미션 수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일영 상임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례의 사무처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2차례의 비전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책자에 게재한 비전과 미션, 핵심목표 등을 도출했습니다. 이들 비전과 미션, 핵심목표들은 다른 누가 제시한 것이 아닌, 사무처 구성원들이 긴 시간 토론을 통해 만들어낸 것으로 향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주요한 활동 방향이 될 것입니다.



“북한 어린이 몸과 마음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나눔은 계속됩니다”

북녘에 있는 아이들, 특히 두만강 국경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BaB이 희망이다'는 남녘 후원자들의 성금으로 북녘 아이들의 한끼를 책임지자는 캠페인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해외동포단체와 협력하여 함경북도 온성군, 강원도 원산시, 문천시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5월 당대회를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급식물자 전달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이 캠페인에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후원자들도 변함없는 성의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부 기관들은 후원 증액을 해주셨고, 이외에도 많은 개인 후원자들이 북녘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팍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도 북녘의 아이들을 위한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캠페인이 북녘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일인만큼,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식물자상차



달라스 우리민족 급식물자 전달



세관을 통과하는 물자를 실은 차량

“고려인 청년들의 내일을 위해 함께 합니다”

고려인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 고려인 난민 정착지원 및 기초생활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현지 고려인 단체 '미리내'에서 한국어와 민족문화를 지켜나가는 활동을 응원하며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성한 것

- 제13회 고려인문화축제 개최
- 제1회 고려인청년포럼 개최
- 한국대표단이 방문하여 고려인문화센터 건립 지원 약속
- 한글학교 운영금 10,000달러 전달



한국대표단과 미리내 간담회

•우리가 성취한 것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청년단체 '미리내'는 올해도 어김없이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고려인문화축제는 10월23일 뮤지컬극장에서 열렸으며, 고려인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들 약 600여명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러시아와 주변지역 고려인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어 민족정체성 확립 및 상호교류를 위한 공동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려인청년포럼을 '미리내'가 주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고려인들을 결속하고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현재 한국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수업공간은 10년 이상 사용한 지하 공간으로 좁고 열악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은 10월 볼고그라드 현지를 방문하여 미리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2017년 내 새로운 고려인문화센터 건립을 약속하였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 건물 조사

•우리 활동의 의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이 고려인들의 언어와 문화 등 민족정체성을 유지해가려는 다양한 노력을 직접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고려인들의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려인문화축제 중 전통무용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 책을 나누는 것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

중국 조선족 동포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네모상자 도서관>을 학교 내에 설치하고, 도서관 서가에 재미있고 유익한 한글 도서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성한 것

■ <네모상자 도서관> 설치

학교	소재지	개관일	자원순서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	길림성 영길현	2016.05	12호
류하현조선족학교	길림성 류하현	2016.09	13호
상지시조선족소학교	흑룡강성 상지시	2016.10	14호
단동시조선족학교	료녕성 단동시	2016.12	15호

■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구분	지역	년월	참가인원
한국 초청연수	서울, 경기 일대	2016.07	9명
중국 방문연수	요녕성 심양시	2016.11	60명

■ 한글도서 지원

시기	수량(권)
2016.06	7,452
2016.10	9,066
2016.11	8,699



도서관운영교육 방문연수



도서관운영교육 초청연수



한글도서 출고

•우리가 성취한 것

올해는 총 4개의 <네모상자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동북3성에 총 15개의 도서관이 문을 열었으며, 이곳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는 총 2회 진행했습니다. 7월에 한국에서 9명을 대상으로, 11월에 중국 심양에서 60명을 대상으로 각각 열렸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조선족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직접 도서관 운영의 경험을 발표하는 등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총 25,717권의 한글도서가 조선족학교에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동포 친구들을 위해 양질의 도서를 기증하였으며, 공공도서관과 출판사에서도 기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 도서는 수원에 위치한 도서분류센터에 모여 분류작업을 거쳐 중국으로 전달됩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에 있는 도서배분센터에서는 전달된 한글도서를 동북3성 각 학교에 적절한 수량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조선족학교 도서관 서가에 도서들이 비치되며 학생들에게 읽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네모상자 도서관>이 조선족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동참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신한은행과 어린이가행복한세상이 도서관 한 개씩 책임지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 연수는 담당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과 부교장 등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더 많은 분들이 연수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의 방향과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연수참가 소감

몸을 움직이는 다양한 활동이 즐겁고 신나고 좋았습니다.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재능을 키우고 꿈을 키우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실, 매하구조선족실험소학교



도서관 개관 소감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말 우리글을 더 잘 익히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이곳에서 우리의 꿈과 힘을 키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한설 학생대표, 류하현조선족학교

한민족어린이지원을 위한 헌교과서 수거

“헌 교과서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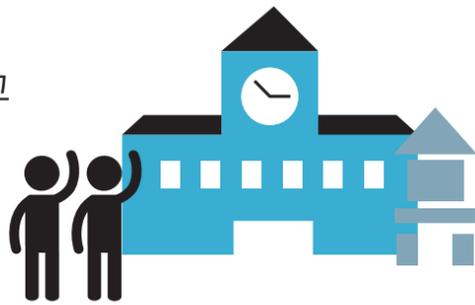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교육청, 교총, 학교와 함께 한민족어린이지원을 위한 헌교과서 수거를 연 4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해 동안 배우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 등을 모아 기금으로 전환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실, 한글학교, 한 끼 급식으로 전달됩니다. 책 한 권에 담긴 학생들의 시간과 배움은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한민족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우리가 달성한 것

2016년
한 해

참여 학교 :
서울,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1,753 개교



총 수거량 :

3,140,606 kg



기금조성액 :

244,638,099 원



홍보 리플렛



다 배운 교과서를 기부하는 학생들

•우리가 성취한 것

2016년 헌 교과서 수거량은 3,140톤이 넘었습니다. 2015년 3,038톤에 비해, 무려 100톤이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2016년 성공적인 헌 교과서 수거가 진행 된 까닭은 헌 교과서 수거 관계자들의 한민족 어린이 돕기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더불어 헌 교과서 날개를 달다 리플렛을 만들어 3,000부 이상 발송하는 등 교육청과 각 학교에 헌 교과서 수거가 곧 한민족 어린이 돕기에 직결되고 있다는 중요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수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참여학교, 수거업체, 수거활동가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열어 협업하고 논의했습니다. 이에 3년이상 활동하는 활동가 그룹이 형성될 만큼 헌 교과서 수거사업의 가치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 교과서 수거사업은 한민족 어린이에게 작은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나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됩니다. 올해 7년차를 맞는 헌 교과서 수거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각종 지원사업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2017년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수거사업을 진행 할 것입니다. 참여 학교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헌 교과서 수거사업은 우리 초·중·고등학생에게 나눔 문화를 싹트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 어린이들의 도서관과 책이 되고, 불고그라드의 한글학교가 되며, 북한 어린이들의 한 끼 식사가 되어, 한민족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열어줄 것입니다.



헌책을 수거하는 일이 마냥 힘들기만 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환경을 보호하고, 해외 우리민족을 돕는 보람된 일을 한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거활동가 이양록



만 4년간 이 일에 함께하고 있지만 번번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수거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는 뿌듯함과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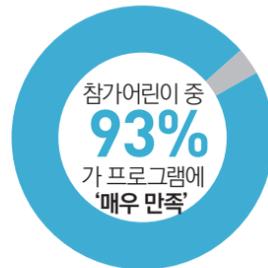
수거활동가 한재형



'평화 세상'을 위한 디딤돌을 놓습니다

201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화축구(Football for Peace)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게임과 놀이를 통해 평화 가치를 배우는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을 서울과 경기도, 대구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대학교에서 평화축구 코치를 양성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리는 평화 한반도의 모습을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청소년 평화통일교육도 연 4회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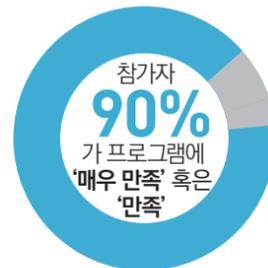
•우리가 달성한 것



평화축구(Football for Peace Korea) 사업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연 3회 진행

- 어린이 70여명 외 학부모, 지역 평화활동가 등 참여
- 서울, 경기도, 대구에서 진행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 연 1회 진행

- 평화활동가, 교사, 대학(원)생 등 60여명 / 어린이 및 학부모 70여명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체육교육과 공동진행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연 4회 진행

- 서울 및 경기도 중고등학생 200여명 참여

•우리가 성취한 것

2016년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평화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였습니다.



코치트레이닝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길음중학교 학생들의 NGO탐방 수업중

평화축구의 경우, 2015년에 이어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제2회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개념을 확산시키며 우리 사회 평화교육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을 통해 공평과 포용, 신뢰, 존중, 책임감이라는 평화 가치를 어린이들과 나누며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을 실시하며 본 평화교육의 지역으로의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화성시인재개발원,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지역아동복지센터, 일선 학교 등과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2016년에도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평화교육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총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통일평화교육은 다양한 모둠 활동과 토론, 평화그림책 읽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함께 생각하고,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학생들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일선 학교, 대학, 국제NGO, 지역사회 풀뿌리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평화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조직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평화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으로의 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남북간의 '서로돕기운동', '교류협력'이라는 우리 단체 고유 경험들을 평화교육에 녹여내며, 우리의 평화교육이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라는 말이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이기기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서로 돕고, 믿고, 책임감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평화축구교실 참가 어린이

"평화축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널리 퍼지고, 후에는 평화축구대회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축구교실 참가아동 학부모

“ 남북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합니다 ”

1995년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 UN 및 국제기구, 국내외 NGO, 개별 국가 등 다양한 기관들이 대북지원에 참여해 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렇듯 다양한 대북지원 주체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연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와 함께 2016년 10월 17~18일 양일간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 - 북한의 변화상과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개최했으며, UN 기구, 주요국 대사관들과의 개별 미팅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달성한 것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 - 북한의 변화상과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

- 일시 : 2016년 10월 17~18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및 글래드호텔 여의도, 경기북부청사
- 주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도,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 참여자 : 80여명(국내외 NGO, UN, 연구자 및 전문가, 국회의원 등)

10월 17일(월) / 국회의원회관 및 글래드호텔
<개회식> - 축사 : 정세균 (국회의장) <기조발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을 위한 국회의 역할 (이춘석,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체회의 1 :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는 대북지원 환경>
<전체회의 2 : 북한 경제개발 전략과 외부의 지원 방향 모색>
<전체회의 3 : 중기 대북지원 우선순위>
<전체회의 4 : 종합 토론>
10월 18일(화) / 경기북부청사
<경기도의 종합 지역개발사업 모델과 향후 확산 방안>



축사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



토론하는 그웬돌린 팡(Gwendolyn Pang) IFRC 팀장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경기도 특별간담회

•우리가 성취한 것

국내외 대북지원 기관들의 경험 공유와 향후 사업 방향 모색, 그리고 단체인 조정 및 연대 강화를 목표로 열린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지난 10월 17일, 18일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됐습니다.

국회 의원회관과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첫 날 회의에는 국내외 대북지원NGO와 전문가, 주한외국대사관, 국회의원실 관계자, 연구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상과 대북지원 환경의 변화, 효과적인 대북지원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장소를 경기도청으로 옮겨 그간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지원 사업 방향을 평가하고 향후 경기도의 사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원활한 대북지원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고 대의기관인 국회의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국회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2016년 회의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또한, 국회의와 이러한 협력은 현재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과도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민간의 참여 없이 정부만의 노력으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대북지원에 있어 남한과 함께 한 축을 형성해 온 국제 인도주의사회와의 연대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 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지속적인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 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 9월 홍수가 야기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은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뿐 아니라, 북한 내부에 상존하는 인도지원의 필요성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다시금 상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금은, 정치와는 상관없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때다.”

*2016대북지원국제회의에서의 발언

린다 루이스(미국친우봉사회 북한사업대표)

“대북지원, 평화정착, 남북통합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201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반도 정세분석과 전망, 북한 변화상을 주제로 세 번의 정책포럼과 세 번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와 남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합니다.

정책포럼 3회

참석자 연인원 100여명

- 63회(서울) : 8월 29일 / 김준형 한동대 교수
“2016년 8월, 한반도와 주변 정세 - 어떻게 읽어내고 대응해야 하나”
- 64회(서울) : 9월 26일 / 정인이 경상대 교수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상”
- 65회(서울) : 11월 21일 / 박인옥 서울연구원 평양특별연구위원 “평양 시장경제 실태와 평가”

토론회 3회

참석자 연인원 200여명

- 1월 4일 2016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
- 1월 8일 긴급 라운드테이블 ‘북한 4차 핵실험의 함의와 시민사회의 대응’
- 12월 19일 특별간담회 ‘북한 2016 신년사 리뷰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



토론 중인 정책포럼 참가자



정책포럼에서 발표중인 정인이 교수



남북협력처와 공동주최한 신년사리뷰 토론회

•우리가 성취한 것

대북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의 환경과 급변하는 북한 사회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정세분석과 더불어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생활을 다뤘던 정책포럼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그간 변화된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북한관련 NGO, 연구자들의 신년하례회로 자리잡은 ‘북한 신년사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한 해 정책 기조를 분석하며 한 해를 전망하였고,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북한 신년사 리뷰를 통해 한 해의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12월의 신년사 리뷰 간담회는 LH남북협력처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두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201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화나눔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통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겠습니다

“봉사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글도서의 수집과 해외 발송에는 경기도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봉사 활동이 큰 힘이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네모상자’라는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한글도서 수집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직접 실천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수원에 있는 분류센터를 방문, “모아진 도서를 알코올로 소독하고 분류에 박스에 포장을 하고 그 박스 안에 있는 책 목록을 작성”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성한 것

■ 경기지역 네모상자 자율동아리 현황

학교명	인원
대평중학교	21명
천천중학교	14명
잠원중학교	27명
영덕중학교	38명
매탄고등학교	22명
동백중, 상갈중	3가족 10명

“이곳 아이들이 도서를 모으고 분류하고 입력하고 박스에 담아 책들이 먼 길을 떠날 때는 늘 생각합니다. 무사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정숙 국장(경기분류센터)

그 많은 책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을 받을 때마다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라고 애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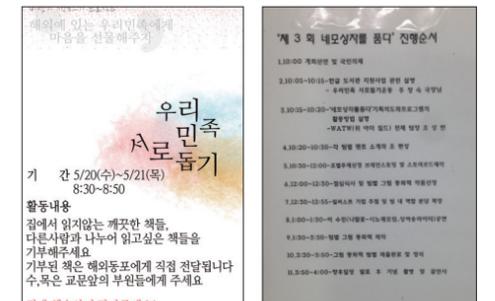
도서를 받은 중국 선생님

•우리가 성취한 것

네모상자 동아리는 친한 친구들 몇 명이 모여 도서 분류와 포장 작업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 스스로 만든 자율 동아리입니다. 몇 명으로 시작한 활동이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확산되고 해가 갈 수록 활동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의 고교 연합 동아리인 WATWG가 주도해 만들어내는 「제3회 네모상자를 품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후배들이 중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3회를 진행한 가운데 해를 갈 수록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가장 큰 영향은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도서분류 봉사에 참여한 학생은 중국을 다녀온 후 ‘가슴 한 쪽이 먹먹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봉사활동을 통해 ‘스크루지처럼 저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었던 마음에서 조금은 큰 마음을 지닌 고등학생이 될 수 있었다.’고 뿌듯해 했습니다.



한글 도서 수집을 위해 대평중 네모상자 동아리 학생들이 교내 복도에 부착한 포스터

「제3회 네모상자를 품다」 진행 순서

연대와 협력은 우리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교류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단체, 기관들과 연대합니다. 이러한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정책위원장 단체로서 대북지원 법률 제정에 앞장섰으며, 30여 개의 여성·평화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2016 여성평화걷기'의 일원으로 평화를 위한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북민협 연대활동

(법률제정 소위원회 활동)

- 대북지원 법률제정 소위원회 : 8월부터 11월까지 5차에 걸쳐 회의 진행
- 11/25 '남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여성평화걷기대회 개최

- 5/28 파주 임진각 (30여개 단체 1,000명 참가)
- 공동주최로 기획 및 실무에 참여하였으며, 우희종 대표, 우리민족 사무처 및 회원 참여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마라톤' 참가

- 8월 17일 (총 50km 구간 중 용산-일본대사관 앞 6km 구간 참여)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마라톤



북중접경지역 답사



2016여성평화걷기대회

•우리가 성취한 것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부회장이자 정책위원장 단체로서 대북 지원법을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제정 소위원회를 구성, 이인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법률안을 작성하고, 11월 25일에는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입법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민협, 국회, 그리고 대북지원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옹호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평화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5월 28일 진행된 '2016 여성평화걷기' 행사의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하며 여성·평화단체들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8월 17일에는 체육시민연대가 주관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마라톤'에 참여하여 전쟁의 고통을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7대 중단, 시민사회단체, 각계 원로들의 연대체로 시작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게 있어 연대와 협력은 우리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평화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화해와 평화로운 남북통합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우리민족)

(사)우리민족은 2016년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수해물자지원을 통해 민간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외동포사업, 통일교육사업의 다양화, 대중·회원사업 확대 등 한민족의 화합과 교류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대북지원사업-북한 함경북도 수해지원

북한 함경북도에 60년만의 최악의 수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유엔기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우리민족은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와 함께 수해지원 긴급모금을 진행하여 11월 24일에 아동용 겨울내복 3,000벌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민족은 앞으로도 동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수해물자 지원

2 재외동포사업-민족 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소중한 인연

조선족아이들의 심리건강과 한글교육을 위한 조선족민족학교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1월에는 심양시 만용소학교에 도서관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서 10월에는 한글도서 약 1만권을 중국 심양 내 조선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동시에 민족교류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제3회 한민족 책 나눔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4월 조선족민족학교 교사 중국현지연수와 9월 광주초청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심양시 만용조선족실험소학교 도서관 개관

3 통일교육사업-광주 청소년 동북아평화탐방단

(사)우리민족은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과 함께 광주지역 고등학생 72명을 선발하여 4개월간의 국내 및 국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와 백두산을 답사하였으며, 하얼빈시와 도문시 조선족학교를 방문하여 조선족학생들과 함께 교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 동북아평화탐방봉사단

02

부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4년 말 부터 '사할린한인역사기념관 건립 운동'을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징용되어 광복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간 한인 동포들을 기리는 합동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사할린 현지에서 추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사할린 동포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역사문화 기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KBS부산 TV1 <뉴스9>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 기획 보도 (2016년 6월 3편 연속방송)

KBS부산 <뉴스9>에서 일제강점기 사할린 징용 희생자들의 역사와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사할린 징용 희생자 추모관 건설 현장이 소개 되었습니다.



2 제1회 러시아 사할린 청소년 초청 역사문화 기행 (8월 2일~6일 4박 5일)

사할린 징용 1세대들의 후손인 동포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부산지역 고등학생들과 함께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람, 충렬사 전통문화 교육, 부산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등의 역사문화 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제3회 일제강점기 사할린 징용 한인 희생자 추모제 (8월 2일~6일 4박 5일)

일제강점기 사할린 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추모비가 세워진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 묘역에서 추모제 진행하였습니다.



03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6년 두 차례 북한 강원도 원산과 문천을 방문해 달라스 동포사회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함경북도 수해지원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원산애육원에 콩 전달하는 모습

1 강원도 원산 지역 2회 방문 및 지원

달라스 동포사회와 교회로부터 모인 성금과 정성을 모아 2016년 강원도 원산을 두 차례 방문하고 지원물자를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1차 방문·지원(5월 25일~6월 4일)

- 발전기 5대, 양수기 5대, 태양전기판 10장, 조정기 10대, 축구공 1,000개 등
- 강원도인민병원, 원산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축구공 및 식량물자를 전달

강원도 원산 2차 방문·지원(9월 3일~10일)

- 콩 60톤, 안과용 세미경(중고), 안과 의약품 등
- 문천 중등학교, 원산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을 참관하여 지원물자 분배상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방문, 안과 의사에게 세미경 조립과 사용법을 설명



콩으로 만든 아동 간식을 살펴보는 달라스본부 윤유중 대표(원산중등학교)

2 수재민 동포들에게 긴급구호 식량 콩 45톤 지원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큰 규모의 홍수가 발생하여 달라스 교회 및 동포사회에서의 모금을 토대로 이 지역의 수재민, 특히 아동들을 위한 긴급구호 식량 콩 45톤을 지원했습니다. 10월 26일 중국 개산탄에서 북한 온성으로 육로를 통해 물자가 운송됐으며, 이는 북한의 큰물피해현장지휘부를 통해 수해피해 아동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수해지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만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동포사회의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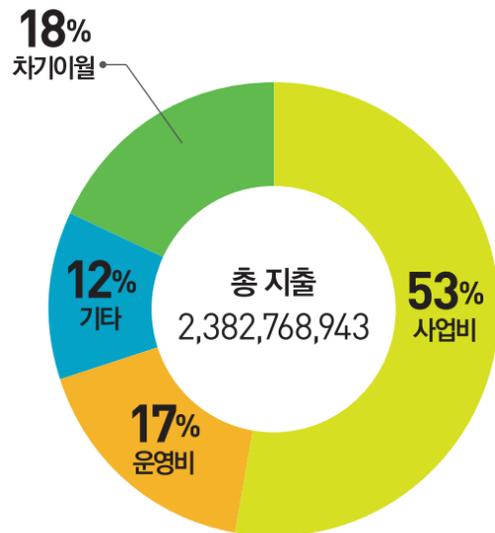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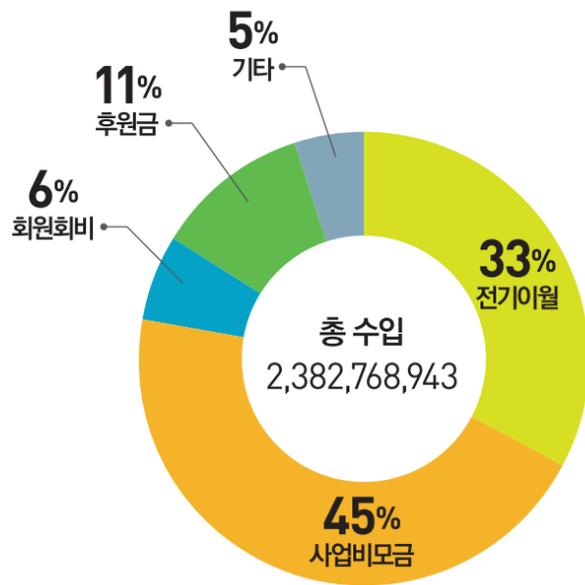
2016년 사업 결산

수입	
전기이월	787,306,924
사업비 모금	1,074,780,769
대북지원사업(수혜)	326,948,379
북한어린이지원사업	199,372,600
재외동포지원사업	111,826,490
한교과서수거사업	314,258,200
정책*평화교육사업	86,175,100
물품(현물)	36,200,000
운영비 모금	399,071,124
회원회비	143,826,340
후원금	255,244,784
기타수입	121,610,126
합 계	2,382,768,943

지출	
사업비	1,261,767,665
대북지원사업비(수혜)	416,958,295
북한어린이지원사업비	335,123,716
재외동포지원사업비	197,475,169
한교과서수거사업비	143,599,444
정책*평화교육사업비	132,411,041
물품(현물지원)	36,200,000
운영비	409,187,203
기타지출	273,571,194
차기이월	438,242,881
합 계	2,382,768,943

(단위: 원)

* 2016년 결산보고가 2월 감사와 공동대표 회의를 통과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고문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경조 前 대한성공회 대주교

상임공동대표
 영 담 부천 석왕사 주지
 윤여두 (주)GMT 회장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공동대표
 길정우 前 국회의원/이투데이 대표
 김문찬 평양과학기술대 특별고문
 김병준 양친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영록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필건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
 무 원 부산본부 상임대표
 박남수 前 천도교 교령/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박완수 가천대학교 한의대 교수
 손진우 삼용화성 회장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원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용선 양천 나눔과동행 대표
 이재술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전정희 농수축산신문사 대표
 정의화 前 국회의장
 천정배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호득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 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사무처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홍상영

기획홍보팀
 손종도 부장
 장근영 간사
 강지현 간사

정책팀
 이예정 부장
 양두리 간사

지원사업팀
 이영재 부장

회계팀
 서명희 부장

이사장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공동대표
 김광훈 담양주산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임승진치과 원장
 정석주 前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무국
 이재봉 사무처장
 김필운 팀장
 조주희 간사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무 원 광수사 주지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조기종치과 원장/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공동대표
 현덕수 러시아 사할린 SSD그룹 회장/
 사할린 한국 한인회 회장
 백승용 주식회사삼주 회장/경남승마협회 회장
 차상조 로엔터프라이즈/부산서북지역사회총무이사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창섭 (주)삼덕통상 대표/
 前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문병기 시민장례식장 대표이사/
 새마을문고 부산광역시지부 회장

박명숙
 최상록
 김필희
 김필곤
 재단법인 진여원

경기센터

주정숙 사업국장
 강정숙 활동가

14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1,700만원 북한 수해 지원에 기부한 김태주 후원자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2시간 일하고 10분 쉬며 8시간씩 일하는 동안 발목의 연골이 상하기도 했다. 고된 하루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한 14개월 동안 적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적금 17,035,120원 전부를 북한수해 지원에 기부했다.

명예퇴직 후에 오직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적금을 모아 오셨다는 김태주 선생님 이야기다. 김태주 선생님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언론을 보면 아프리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우리 동포 이야기를 찾기는 어려워요”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마저 어려워진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 본 것이다. 선생님은 “아프리카를 돕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생각하셨다.

처음에 김태주 선생님은 “정부가 수해지원을 불허한다고 하니 수해지원은 안되는가보다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수해지원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후 우리민족 사무처에 바로 연락을 하신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인도주의 원칙이다. 수해를 입은 동포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하신 김태주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함께 서로돕고 나누면 통일도 또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어찌면 근본으로 알고 살아 왔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명절이 다가오면 아버지께서는 쌀을 보자기에 담아 마루에 한 줄로 쪽 세우시고 할머니께 이건 누구네 쌀. 저건 누구네 쌀. 하시는 걸 보곤 했어요. 우리와 북한도 한뿌리에서 시작한 한민족으로 이념을 떠나 더불어 함께 서로돕고 나누면 통일도 또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2011년부터 후원 중이신 **한서정 후원자님**

“후원금이 너무 커지기 전에 통일이 돼야 할텐데..”

수년 전 "밥(BaB) 캠페인"을 접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통일이 될 때까지 매년 조금씩 더 후원할 생각으로 정말 적은 금액의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통일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몇 년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보며 사소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후원금이 너무 커지기 전에 통일이 돼야 할텐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제가 아는 국내외 NGO 중 사무국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능력”이 단연 최고입니다. 이제 20살 성년의 나이를 지났으니 앞으로의 20년 중년이 될 때까지 더욱 건강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2005년부터 후원 중이신
윤지현 후원자님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교육은 책, 자연, 놀이예요.”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교육은 책, 자연, 놀이예요. 그리고 그 활동들에 자연스럽게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한글책이 부족해 우리말도 잘 알기 어려운 조선족 학교 아이들에게 책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좋은 책을 보고싶어 하는 동포들에게 책들이 갈 수 있어 뿌듯합니다.

2016년 아이들과 함께 읽던 책 663권 기부해주신
이수정 선생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길 응원합니다.”

소소한 헌교과서 수거 활동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며 책 속에서만 보던 NGO에 대해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간접적으로나마 해외 동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길 응원합니다.



2016년부터 활동 중인
대학생 유재환 활동가님



함께 동행해준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후원자 명단

(사)국제푸른나무 (사)굿파머스 (사)어린이깨동무 (사)우리민족 (사)평화삼천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유)세화관광여행사
 (유)스마일기획건설 (주)대용파마텍 (주)리치스톤 (주)삼성파워일렉트릭 (주)세진산업개발 (주)신도데이터통신 (주)여행이야기
 (주)우리홈쇼핑 (주)이토마토 (주)창이엔지 (주)클린피에스엠 (주)탑키즈에듀 40년지기 갈릴리교회 감복조 강경중 강경태
 강기성 강남준 강달호 강대균 강대현 강동완 강동혁 강명신 강민수 강병수 강병태 강병희 강삼용 강선미 강섬부
 강성학 강승원 강승희 강신 강신우 강원호 강은향 강익범 강정미 강정음 강지영 강창구 강채원 강천일 강철희
 강필희 강혜경 강혜영 강희재 강희주 강희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협회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경진TRM 고광현
 고권석 고기은 고기철 고명진 고병우 고봉균 고석주 고성균 고세량 고영삼 고유민 고정수 고지영 고진광 고창훈
 고희갑 공용택 공은주 공지현 광계영 광동선 광병열 광연실 광영한 광정란 광채원 광철 광현 광진자원 구국모
 구도완(겨자씨교회) 구수영 구영주 구윤경 구정희 권강섭 권병오 권보미 권숙희 권승언 권영수 권영운 권오근 권오근
 권익산 권재인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권태진 권현무 금휘식 기나영 길기관 길미성 길정우 길창배 김갑송 김갑수
 김갑식 김강안 김경년 김경돌 김경란 김경란 김경숙 김경표 김경하 김경화 김계순 김공련 김관식 김관태 김관호
 김광국 김광아 김광열 김광진 김구 김규진 김근순 김근영 김근우 김근환 김금순/이호준 김금평 김기곤 김기동
 김기원 김기은 김기정 김기판 김길자 김나눔 김나눔 김당 김대성 김대영 김대영 김대중 김덕훈 김덕희 김도규
 김동규 김동근 김동민 김동엽 김동우 김동진 김동천 김동환 김두현 김두환 김만진 김만태 김만호 김맹기 김명관
 김명숙 김명신 김명희 김문혁 김미순 김민곤 김민범 김민제 김민희 김범상 김병규 김병균 김병수 김병주 김병준
 김부도 김삼수 김삼천 김삼택 김상근 김상득 김상범 김상식 김상영 김상운 김상현 김석진 김석향 김선명 김선미
 김선배 김선숙 김선창 김선희 김선희 김성도 김성봉 김성수 김성숙 김성오 김성우 김성재 김성주 김성진 김성철
 김성해 김성훈 김세라 김소영 김수경 김수암 김수억 김수현 김순한 김승진 김시영3415 김신영 김신희 김애송
 김양수 김양숙 김연옥 김연희 김영규 김영근 김영남 김영도 김영득 김영모 김영수 김영중 김영주 김옥수 김옥영
 김용기 김용덕 김용재 김용현 김용화 김용희 김우영 김우전 김우중 김원국 김원섭 김원영 김윤철 김윤태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혜 김은희 김응곤 김응상 김익곤 김일성 김일환 김자람 김장권 김장윤 김장훈 김재기 김재욱
 김재준 김재홍 김정 김정기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수 김정수 김정순 김정순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의
 김정인 김정인 김정현 김정한 김제호 김종갑 김종관 김종국 김종길 김종비 김종순 김종열 김종하 김종현 김종혁
 김종희 김주애 김주영 김주완 김주태 김주학 김주홍 김주환 김준석 김준영 김준현 김중수 김중호 김지선 김지숙
 김지우 김지이 김진경 김진관 김진동 김진문 김진백 김진식 김진태 김진현 김진현 김창순 김창연 김창영 김철호
 김태겸 김태균 김태순 김태주 김태평 김태형 김태훈평통기연 김판준 김풍기 김학경 김학노 김학성 김학신 김한신
 김해진 김향숙 김현 김혁제 김현미 김현성 김현성 김현수 김현우 김현정 김현철 김형관 김형순 김형욱 김형중
 김혜경 김혜경 김혜옥 김혜종 김호식 김홍석 김홍순 김홍진 김홍희 김효은 김효정 김희곤 김희국 김희년 김희순
 나선경 나선길 나영진나영석 나원연 나은우 나창윤 남미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북의료협력재단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남상돈 남세현 남우주 남장현 남화순 노관숙 노민화 노승일 노윤미 노인선 노정환 노제승 노춘봉 노태완 노호균
 녹색교통운동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덴가즌(Dan Guddgeon) 도재영 동방의밝은빛
 동북아평화연대 동양물산기업(주)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라병화 라영성 류덕용 류병길 류새날 류새벽 류수빈
 류연석 류영준 류용성 류이근 류재호 류정숙 류주현 류현선 류화자 류희웅 마경화 마명락 마윤중 맑은샘학교
 목주승 문경숙 문경순 문대은 문미영 문성권 문성권 문성욱 문수정 문용식 문주성 문찬기 문태환 민경기 민순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항석 민현주 박강호 박경국 박경조 박경호 박계용 박계윤 박광민 박귀순 박귀현 박금희

박기두 박기찬 박기호 박남수 박남용 박동실 박동우 박동호 박만승 박명숙 박문식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민욱 박병무 박병우 박병진 박복남 박복영 박상욱 박상일 박상일 박상희 박석양 박선숙 박선우 박선진 박성기
 박성은 박소희 박순 박순성 박순성 박애스더 박영근 박완수 박요순 박용수 박용천 박용희 박원규 박유중 박윤훈
 박은숙 박은주 박의용 박인곤 박인숙 박인숙 박인순 박재규 박재묵 박재순 박재완 박재한 박재호 박정길 박정란
 박정숙 박정식 박정우 박정자 박정화 박종균 박종근 박종록 박종원 박종윤 박종의 박종환 박주영 박주현 박주현
 박지연 박지웅 박지호 박진우 박찬숙 박태신 박표균 박현철 박형준 박형중 박혜영 박흥열 박희순 박희운 방석환
 방재만 방철호 방학진 방현섭 배강우 배기안 배덕호 배소영 배수진 배수현 배재현 배정민 배향란 백낙서 백낙청
 백도인 백정은 변선애 변진석 본교육 봉미란 복수혜지원5차 사단법인한국양묘협회 사단법인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단법인
 희망래일 사랑의채널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서경혜 서기원 서동화 서명호 서민원 서민희 서비스포피스 서순희 서연우
 서연우 서옥주 서울종교친우회 서정숙 서정인 서철원 서혜경 서희정 석지홍 석지훈 석찬희 선봉규 선영숙 선정아
 설인혜 성가소비녀회 성낙준 성도경 성열찬 성완호 성현주 세형자원 소장섭 손경임 손경환 손광우 손덕현 손삼국
 손서정 손승호 손여준 손영주 손정아 손주현 손진책 손훈 송경민 송경숙 송기무 송두현 송명옥 송민규 송상용
 송상윤 송영길 송용석 송운학 송은숙 송은지 송인규 송재범 송재영 송재천 송재현 송정배 송지섭 송춘섭 수명산교회
 수해복구 신경록 신경서 신경은 신규호 신기호 신대현 신동석 신동해 신민수 신범선 신삼복 신상문 신수억 신순남
 신은결 신정식 신진현 심경란 심나리 심말선 심승섭 심영신 심재구 심재원 심재정 심현용 심현희 안규식 안동희
 안명화 안민식 안산교회 안상화 안서윤 안세봉 안영숙 안윤석 안재형 안정덕 안정식 안정애 안정훈 안종금 안종출
 안준상 안진회계법인 안현성 안효진 양관승 양근성 양기주 양두환 양문수 양미아 양순환 양영두 양우성 양윤정
 양인보 양재섭(북한대) 양재원 양진선 양한식 양해운 양해준 양현석 양효정 양희석 어린이재단 어용철 엄기철 엄용수
 엄주일 연희침례교회 염규현 염철 영의료재단 오계환 오기성 오동일 오명섭 오문택 오선연 오성수 오세호 오소영
 오수경 오수형 오승록 오승현 오이경 오정수 오준희 오태정 오현광 오형석 오형윤 오혜근 오혜선 오화선 오훈정
 옥용호 온강민 온영두 완주박미란 왕정찬 우동훈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성호 우희중 원동우 원종남 원형복
 원효진 월드비전 웨스턴테크닉 위은량 유근춘 유근호 유남길 유니크교육 유덕조 유명량 유명희 유미경 유방용 유병천
 유승주 유승희 유연미 유영근 유원희 유윤숙 유재욱 유재진 유재호 유종석 유종희 유지수 유진상 유피에스시스템(주)
 육근범 육재희 윤경로 윤광운 윤기홍 윤미화 윤병현 윤서영 윤성진 윤성진 윤승림 윤승섭 윤시원 윤업석 윤여두
 윤연수 윤영복 윤영선 윤용근 윤자영 윤재희 윤정현 윤종식 윤종원 윤주호 윤지열 윤지인 윤지현 윤지현 윤창섭
 윤한별희 윤혜정 이강기 이강희 이경래 이경미 이경재 이규 이규문 이규설 이근태 이근행 이기호 이기화 이기훈
 이남재 이남철 이남희 이대호 이동구 이동석 이동섭 이동수 이동영 이동원 이동현 이리나 이명석 이명수 이명천
 이명환 이목희 이무철 이미래 이민성 이민영 이법재 이병국 이병도 이병동 이병묵 이병재 이상복 이상업 이상업
 이상재 이상준 이상철 이상춘 이상학 이상호 이상훈 이서하 이석용 이선 이선규 이선장 이선호 이선호 이성기
 이성민 이성수 이성주 이성호 이세은 이수구 이수명 이수연 이수정 이수정 이숙희 이승곤 이승교 이승영 이승우
 이승한 이승현 이승환 이시우 이양재 이연하 이연주 이엽 이영내 이영동 이영순 이영주 이영주 이영철 이영호
 이영환 이영훈 이영휘 이옥순 이완수 이용균 이용범 이용선 이용연 이용주 이용찬 이우영 이우인 이운식 이운정
 이운학 이원민 이원배 이원복 이원욱 이원욱 이윤열 이윤관 이윤리 이은혜 이은세 이인덕 이인수 이인제 이일선
 이일양 이일영 이일영 이장원 이재명 이재봉(남이랑북이랑) 이재술 이재영(세종연) 이재원 이재하 이재학 이점호 이정미
 이정세 이정수 이정숙 이정식 이정업 이정주 이정철 이정훈 이정희 이재현 이종문 이종민 이종민 이종석 이종섭



이종성 이종숙 이종안 이종주 이종학 이종호 이주남 이주철 이주하 이주형 이준동 이지영 이지용 이지운 이지원
 이지은 이지하 이진권 이진섭 이진아 이진탁 이찬우 이찬용 이창용 이창재 이채경 이천권 이철주 이청희 이춘삼
 이충묵 이치수 이태주 이학수 이한결 이한슬 이한택 이해숙 이항 이항미 이현석 이현숙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해경 이해란 이해옥 이해옥 이해원 이해정 이홍우 이홍준 이화운 이효식
 이효재 이희성 이희원 이희종 이희택 임강택 임광호 임금숙 임김실 임동선 임문희 임병수 임세진 임완민 임원빈
 임인기 임장원 임정애 임지훈 임창영 임춘수 임태근 임한진 임해광 임형주 장길수 장라미아 장명봉 장문호
 장민환 장범식 장보형 장사익 장선영 장수필 장순천 장영준 장용석 장용성 장용훈 장원석 장유경 장윤진 장은하
 장인숙 장재영 장주해 장춘용 장형수 장환빈 전경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극재 전기철 전기환 전달수 전미란
 전범권 전병태 전병희 전성관 전영길 전영일 전일순 전정수 전정희 전중수 전채남 전철호(주)개성 전향이 전해린
 전훈 정경순 정경옥 정계현 정광수 정광식 정근영 정기운 정동수 정두용 정란아 정명준 정미선 정미혜 정민
 정범영 정범진 정병헌 정상모 정상원 정석만 정성경 정성호 정세현 정수경 정수근 정수조 정수준 정수진 정수현
 정연실(송경평) 정연웅 정연정 정연준 정영근 정영자 정영철 정용선 정옥식 정원섭 정윤영 정인성 정인준 정일영
 정재민 정재욱 정재현 정정옥 정정태 정종원 정종렬 정지영 정지원 정지은 정지혜 정진영 정진원 정찬광 정창수
 정태은 정한성 정해문 정해열 정현곤 정현철 정현태 정혜숙 정혜인 정홍상 정희범 정희인 정후진 정흥귀 조경혜
 "조기봉/세운" 조대엽 조두연 조만용 조미수 조민아 조민지 조병한 조봉현 조석희 조선아 조성덕 조성탁 조성호
 조성희 조승훈 조승희 조영상 조영석 조영식 조용원 조용진 조우영 조윤 조윤곤 조은미 조은희 조응원 조재현
 조재호 조정순 조정아 조주원 조준석 조지현 조창식 조태현 조한민 "조현/조윤" 조형준 주관수 (주)두예건축사
 (주)디에서인터내셔널 주송순 주식회사성광 주식회사에스제이아엔씨 주재열 (주)지엠티 주현기 주혜영 주희욱 지선경 지준호
 지태석 진관스님 진양숙 진용순 차동초등학교 차봉수 차창혁 차현애 차형철 참여연대 채병철 채보미 채송이
 채송화 채우혁 채향란 천경배 천도교중앙총부 천정배 천현식 최경미 최경인 최규원 최기수 최기천 최남건 최병희
 최사라 최석기 최성범 최성수 최성원 최세문 최숙희 최순옥 최승호 최승호 최식덕 최양옥 최연주 최영림 최영현
 최영희 최완규 최용익 최우정 최유복 최윤식 최윤실 최윤표 최은정 최의찬 최재근 최재문 최재원 최재천
 최정숙 최정애 최정환 최종철 최준혁 최지원 최진옥 최진원 최진일 최창무 최철영 최태자 최태희 최필선
 최현주 최희송 최희은 추진해 탁종녀 평화재단 푸른초장교회 풀무학교 하승창 하재원 한강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제이티에스 한국종교연합 한국화학연구원 한금옥 한기백 한길석 한나영 한녹희 한다솔 한다현 한덕섭
 한덕섭 한덕희 한동학 한동휘 한동희 한두희 한상만 한서정 한성희 한승엽 한예린 한원택 한윤구 한은혜
 한의상 한인숙 한인숙 한정화 한준구 한지섭 한진옥 한창현 한하니 함기문 함께나누는세상(남북평화재단) 함양김재수
 함용운 허귀석 허민석 허설 허원종 허인웅 허인자 허일구 허정 허준규 현대명덕판매대리점 현대아산 현윤식
 현윤실 현윤애 현종스님 현종윤 현지연 호영진 홍구표 홍기호 홍면기 홍미옥 홍상운 홍석 홍성각 홍성건
 홍성근 홍성복 홍성준 홍숙희 홍순계 홍우영 홍윤정 홍제표 홍준석 홍진표 홍창영 홍현서 홍현선 화신농건
 환성스님 환성스님 황계연 황금철 황대철 황명필 황성주 황영성 황영자 황의중 황인선 황장권 황재성 황재택
 황중철 황지중 황창규 흥사단



평화의 사과나무를 함께 심어주세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평화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지요.
 사과나무에 거름을 주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후원안내 CMS(자동이체) 후원 소식지 후원신청서 작성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CMS(자동이체) 신청, 휴대폰, 신용카드 후원
 계좌이체 및 지로 후원 국민 011-01-2503-703
 농협 386-01-004282
 하나 10101-3849606
 신한 140-002-997113
 우리 111-04-133058
 우체국 010017-01-006718
예금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발행 정보 발행인 : 영담, 윤여두, 이일영, 최완규 상임공동대표 주소 :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발행일 : 2017년 3월 전화 : 02-734-7070 | 팩스 02-734-8770
 발행처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메일 : ksmseoul@ksm.or.kr | 홈페이지 www.ksm.or.kr
 기획 및 편집 : NPO스쿨 디자인 : 이소라